한국 DMZ의 드러난 상처

조 앤 (미국 개릿신학대 교수)

PLZ Forum for Ecozoic Era 2020

1976년 부모님을 따라 한국을 떠난 후 2001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동경비구역과 판문점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역설적이게도 세계에서 가장 군사시설이 밀집한 지역)로 알려진 곳을 방문했다. 한국의 DMZ 규모가 작은 걸 고려하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곳이 된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를 두 동강 낸 약 4킬로미터 너비의 땅이다. 이곳에서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이 남북한 유일한 교차점이다.

DMZ는 눈에 보이는 흉터, 한국의 몸을 따라 흐르는 상처, 자신의 힘으로는 치유하지 못하고 구경꾼들만 쳐다보는 상처를 연상시킨다. 마치 라틴 아메리카인 시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가 노출된 혈관을 갖는 것에 대해 말한 것처럼… 방문 기간 내내 나는 분노, 고통, 슬픔과 같은 본능적인 반응에 몸부림쳤다. 방문 당시였던 2001년, 관광 회사로부터 매년 약 10만 명의 외국인이 이 불변의 지형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는 얘기를 들었다. 삼엄한 경비와 엄중한 군대의 주둔으로 황무지처럼 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자연보호구역을 조성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일부 종들에게 공간과 자유를 제공한다. 거의 비인간화된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동물 보호구역 중 하나로, 웅장한 만주 두루미와 같은 종들을 멸종으로부터 보호한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DMZ는 노출된 혈관보다는 개방된 무덤에 가까웠다. 나는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몰랐을 사람들도 느끼는 정신적 충격과 슬픔의 지속적이고 누적된 침전물에 계속 시달린다.

세계 지도상에 존재하는 십자선은 주로 식민지와 제국주의 세력이 사람들의 이동성을 분리하고, 에워싸고, 분할하고 통제하기 위해 그린 것이다. 국경은 안보를 위해 세워졌다는 대중적인 유사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 나라의 국경 반대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감금(carceral) 구조다. 이러한 국경 구조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나 인종을 통해 지배를 원하는 국가에 인종적 분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경이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관리 도구로서 또 보편화된 인종 자본주의의 세계 세력으로서 접하게 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 유럽에서 시작된 세계 식민 프로젝트와 민족 국가의 출현, 그리고 끝없는 전쟁 이후, 국경은 주권국가의 힘을 표시하고 측정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누군가는 국경 생성을 정당화하는 많은 명백한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유주의적 정치 합리주의(미국 예외주의)와 함께 하는 경제프로젝트(신자유주의), 군국주의의 경제가 치외법권 지배에 대한 제국주의적 욕구를 부채질하고, 삶의 에너지(물질적, 영적)의 점진적인 추출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처분과 소멸(인구감소)까지 계산해 넣는다. 이러한 다중 벡터는 미국 국경벽 구축 및 군사화된 국경 보안화를 지원한다. 이 벽이 토착민의 땅이든지 붉은 줄이 그어진 도시 구역이든지 세계에 걸친 군사적 개입인지 관계없이 말이다. 군사주의 국경을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러한 국경을 치안하고, 민족의 이동성을 통제하고, 영토 외 침략에 대한 근거를 형성하고, 국경을 넘어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있다. 2019년 6월 초 국경 순찰대원을 과테말라로 파견한 사례와 유사하게 다른 주권 세력을 종속시켜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의 물결을 종식시키려 한 사례와 같이 말이다.

나는 군국화된 국경과 국경벽 건설이라는 군국화된 광경이 얼마나 야만스러운지를 강조한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는 지난 몇 년 동안 더욱 심화된 국경의 식민지 프로젝트로서 더욱 그렇다.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미국에 의한 이러한 끊임없는 군사개입은 한국 국민들이 군국주의 문화를 정상이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국가의 주권이 동일하게 생성된 건 아님을 나타낸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다.

1. 국경과 접경지역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식민지 존재 확산의 관점에서 보면 국경과 접경지역은 영토, 민족, 문화를 개척할 제국의 주권력의 존재를 나타내며, 삶과 죽음에 대한 법권력의 행사의 가장 눈에 띄는 표시이기도 하다.

2. 오늘날 국경과 접경지역은 제국주의 강대국의 유산이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종의 글로벌 감금 체제다. 국경은 불안

정과 경제적 불평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며 취약한 사람들을 추출하는 걸 국가가 승인하는 데 사용된다. 군대는 국민을 상대로 '안보 국가'라는 개념과 관행을 팔고 있다. 국경 구축 및 국경관리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이러한 테러 전술은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피해'를 낳기 때문에 국경의 생성과 유지와 군사화된 보안은 주로 경제에 관한 것이다. 국경 생성은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글로벌 경제 프로젝트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룸만과 같은 군 계약업체들은 미국/멕시코 국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사이트의 다른 국경을 따라 국경선을 만드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 이 파트너십에는 고강도 분쟁 지역에서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다양한 드론과 같은 첨단 군사감시 장비와 더불어 물리적 장벽 전략과 개인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포함된다.

3. 국경과 접경지역은 항상 다른 영토, 사람, 문화와 접선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경과 접경지역을 표시하는 공간은 눈에 띄지 않게 고립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DMZ 지대가 많은 종들에게 환경적인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폭력과 이주의 기억과도 함께 존재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위치해 있는 소노라 사막의 경우처럼, 미국 국경순찰대는 아름다운 소노라 사막이 이주민 관리라는 정치적 게임에서 어떻게 적극적 국경 통제 수단이 되는지를 배운다. 소노라 사막은 고단하고 치명적인 여행을 하는 이주민들의 관리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미국 요원들은 이주민을 죽일 필요 없이 '사막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한다. 이 특별한 경계선은 제이슨 데 레옹(Jason de Léon)이 말하는 '구조적 폭력'의 영역으로, 국경 주변의 자연 환경과 전쟁 기술이 결합되고 면책이 적용되는 생물학적 형태의 국경 통제*(The Land of Open Graves)*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4. 국경과 접경지역는 종종 이동과 감금의 관리를 의미한다. 이 지역은 종종 토지 절도 역사에서 사람들이 탈취당하고, 테러에서 비행기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군국화된 폭력을 의미한다.

5. 국경과 접경지역은 집단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박탈 및 강제 이주의 일부인 상실, 슬픔, 공포 및 불안과 같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우리는 개인의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유전자조차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몸이 겪은 일을 몸이 기억하고 몸이 말을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DMZ의 경우, 한국전쟁으

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도 두 나라는 여전히 정체 상태에 있다. 우리는 집단적 상실, 동경, 슬픔의 세대 유산을 처리했다고 말할 수 없다. DMZ의 접경지역은 한국과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재편성하는 테러사건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는 긴 시간 풀리지 않는 비극적 서사와 그 서사가 정치생물학적 관리로 작용하는 일종의 감정적 피로가 존재한다. 김숙영이 지적했듯이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기억되는 방식은 대부분의 분단기간 동안 애도라는 국가적인 수사가 독점했다. 그러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비극적인 이야기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6. DMZ에 영향을 받은 생산 및 관리뿐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의 접경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집단적 미래 가능성까지도 계속해서 해를 입히고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국경과 접경지역 주민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삶의 실천으로 상상하고 또 상상할 수 있게 한다.

7. 국경 및 국경지역의 해체 요구가 있지만, 과연 가능할까? 식민지적이고 제국주의 기반인 한국 DMZ와 같은 국경과 접경지역이 이렇게나 많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세대에 대한 특정 영향의 과도한 포화, 접근 불가 및 배제의 세계로 구성된다. DMZ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조직한다. 한국의 평화를 위해 DMZ를 해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마도 지금 당장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하고 강력한 창조성일 것이다.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국경이 억제할 때 우리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능성을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은 무엇일까?

국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능한 미래에 도달하기 시작할 때, 주저함 때문에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우리의 능력이 방해받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리학자 존 애그뉴(John Agnew)의 말을 전한다. "영토적 관점에서 세계를 생각하고 생동하는 국경 함정이 있다. 그것들은 사물, 돈, 사람의 움직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지성, 상상력, 정치적 의지의 행사를 제한한다. 문제는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